

언어적 억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구-철회 의사소통패턴의 매개효과

김민선 신희천*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남편과 부인의 개별적인 언어적 억제의 수준 정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개인 내 효과과 대인 간 효과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나누어 살펴본 후,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이 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적 억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남편의 언어적 억제가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언어적 억제가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 즉 언어적 억제가 결혼만족에 대해 자기효과는 나타냈으나, 상대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언어적 억제가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을 매개변인으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남편의 경우 완전매개된 자기효과를 나타냈다. 즉, 언어적으로 억제하는 남편은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을 보이고, 그러한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은 자기의 결혼만족을 해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주요어: 언어적 억제,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 결혼만족, 부부관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부트스트랩

결혼생활은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결혼생활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갈등을 조화롭게 풀어나가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효과적인 부부 간 의사소통이다. 부부 간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언어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고 그들에게 이해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연결됨을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Swann, Rentfrow & Gosling, 2003). 즉, 자신의 모든 사고와 느낌을 바로 망설임 없이 충분히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상당한 시간을 두고 말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Swann 등(2003)은 말을 억제하는 데서 보이는 개인차는 사람들의 고유한 성격특질로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자마자 입으로 내뱉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과 느낌이 표현되기 전에 끓어오르는데 시간이 필

* 교신저자: 신희천(443-749)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031)219-2747, Email: hcshin@ajou.ac.kr

요하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빨리, 자주, 그리고 충분히 상대방에게 언어적으로 반응하느냐 정도는 개인이 고유하게 가지는 특성으로 개인차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언어적으로 즉각적이고 충분히 반응하는 정도를 언어적 억제(verbal inhibition)라고 개념화하였다.

대부분의 성격 차원과 달리, 언어적 억제는 반응의 특정한 내용보다는 사람들의 언어적 반응의 신속성과 양을 다룬다. 언어적 반응의 신속성과 양이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빠르고 넘치는 언어적 반응자는 대화 상대방의 호의와 존경을 얻을 수 있다(Swann & Rentfrow, 2001). 즉, 언어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 안에 상대방에게 반응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언어적으로 억제하는 사람에 비해 좀 더 주의 기울이게 되고, 따라서 상대방의 호감을 키우는 능력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 상호작용 동안 의견을 말하려는 열망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위에 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Giles와 Street(1994)의 연구에서는 관찰자가 빠르게 말하는 사람을 천천히 말하는 사람보다 더 호감 있고 능력 있게 본다는 결과를 얻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어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특성은 반응자의 부정적인 특질도 증폭시키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기는 짧을 수 있다. 즉, 언어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특성은 반응자가 갖는 기질이나 다른 특질을 증폭시키고 언어적으로 억제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더 드러낼 수 있다. 반면 언어적으로 억제하는 사람은 정서적 반응을 경험한 후 바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서표현을 놓칠 수 있다.

이처럼 언어적으로 억제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억제의 수준은 시간에 걸쳐 변하지 않는다(Swann & Rentfrow, 2001).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타고난 요인(예: 외향성, 신경증)과 초기의 경험의 표상(예: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Swann 등(2001)은 대인관계의 짧은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언어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회성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질과 지능, 그리고 정서적 반응, 외향성 등의 특질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했다.

언어적 반응의 개인차와 관련한 과거 연구들은 외향성과 같은 다면적 특질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외향성은 언어적으로 반응이 빠르고 풍부한 것과 독립적인 다른 특성(예: 따뜻함, 사교성, 활동 수준, 즐거움 추구, 긍정적 정서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언어적 채널에 한정된 상호작용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제한점이 있었다.

Swann 등(2003)은 언어적 반응에서 억제하는 정도의 개인차는 관계 파트너와 얼마나 잘 지내는데 대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가까운 관계의 의사소통 패턴에서 언어적 억제는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채널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의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상호작용하고 싶지 않은 파트너를 압도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은 비교적 직접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사람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즉, 언어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요구가 잘 알려지도록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반대로 언어적 반응을 억제하는 사람의 느린 반응 속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계에 대한 관심의 부족을 반영한다고 느끼게 할 수도 있다(Swann et al., 2003). 즉,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바로 언어로 표현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향성 모두 인간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말의 억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남녀의 개인차가 결혼만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혼만족은 결혼생활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주관적인 지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혼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결혼의 안정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여겨졌다(Karney & Bradbury, 1995). 결혼만족 연구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개인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었다. 성격 특성 가운데 신경증이 결혼만족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연구되어져 왔고(Kelly & Conley, 1987), 우울, 충동성, 외향성, 사회성 등의 성격 특성이 다루어져왔다(홍대식, 2005). 언어적

억제는 개인 특성 변인으로 성격처럼 안정적인 개인의 성향으로 볼 수 있으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관계 만족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언어적 억제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남녀가 어떤 조합으로 짝지어졌을 때 관계의 질이 어려움을 겪는지를 살펴보았지만(Swann et al., 2003, 2006, 2007) 본 연구에서는 이에 앞서 남편과 부인 각각의 언어적 억제 정도가 남편과 부인 각각의 결혼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갖고 언어적 억제가 더 낮은 결혼만족을 예측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언어적 억제는 가까운 관계의 의사소통 패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되었다(Swann et al., 2003). 하지만 부부 간의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도 제한적인 설명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을 차지하고 관계 자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부부관계도 다른 대인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 내적인 과정과 대인 간 과정이 통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개인 내 심리학적 변인이라 할 수 있는 언어적 억제와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대인 간 상호작용 변인이라 할 수 있는 부부 간 의사소통 패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갈등 상황 동안 커플이 보이는 행동은 결혼과 가족 간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가족 기능을 향상시키는 개입을 개발하는 연구자와 상담자의 주요한 관심사이다. 연구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상호작용 패턴으로 갈등 상황에서 한 명은 요구하지만 다른 한 명은 철수하는 패턴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요구-철회 행동은 (a)문제 커플에서 자주 등장하고(Christensen & Shenk, 1991), (b)시간에 걸쳐 관계 만족의 저하와 관계가 있고(Heavy, Christensen, & Malamuth, 1995), (c)배우자의 학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Berns, Jacobson, & Gottman, 1999) 주목 받아왔다. Christensen과 Heavy(1990)는 상대 배우자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비난과 불평을 하며 강요하는 요구행동과,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의에서 물러나는 철회행동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구-철회 행동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조화롭지 못한 관계의 근원을 확인

하게 위해 문제가 있는 커플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 연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생활은 부인요구-남편철회 패턴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보고한다(Heavy, Christensen, & Malamuth, 1995; Heavy, Layne, & Christensen, 1993). 또한 Gottman과 동료들(Gottman, 1994; Gottman & Krokoff, 1989)은 이혼을 예측하는 상호작용 패턴으로 'stonewalling'을 말하는데 이것은 남편이 갈등 동안 정서적으로 파트너로부터 철회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이처럼 남편이 철회하거나 부인이 철회하는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불만족을 예측하는 중요한 행동적 변인으로 볼 수 있는데 언어는 의사소통의 주요한 도구인 만큼 언어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는 의사소통 패턴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언어적 억제라는 개인 특성은 의사소통 패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부부 간의 역기능적인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은 언어적 억제에서 비롯되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Swann 등(2001)이 제안한 개념인 언어적 억제가 부부간 의사소통 패턴 가운데 대표적인 역기능적 패턴이라 할 수 있는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Swann과 Angulo(2006)은 커플의 언어적 억제의 수준 차이로 인해 생기는 특정한 남녀의 조합이 관계 만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고 이들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부부 간 의사소통 가운데 낮은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패턴과 높은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을 들어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개별적인 언어적 억제의 수준 정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개인 내 효과와 대인 간 효과 둘 다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나누어 살펴본 후, 언어적 억제 수준이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 간 의사소통 패턴 가운데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이 때 APIM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 이하 APIM, Kashy & Kenny, 2000)에서 매개를 검증하기 위해 Srivastava 등(2006)이 사용한 네 단계의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 이에 앞서 Swann 등(2001)이 언어적 억제

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척도로 개발한 BLIRT(Brief Loquaciousness and Interpersonal Responsiveness Test)의 타당화 작업이 예비연구로 수행되었다.

부부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언어적 역제의 수준과 부부 간 의사소통 패턴, 그리고 결혼만족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어떤 개인 내적 변인이 어떤 행동적 매개 변인을 거쳐 결혼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지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부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패턴을 변화시키는 행동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커플을 돕는 상담적 개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커플이 분석 단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부부 둘 다 작성한 것만을 사용하였다. 부부 220쌍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응답자들은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전라북도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다.

측정 도구

BLIRT(Brief Loquaciousness and Interpersonal Responsiveness Test)

Swann과 Rentfrow(2001)가 개발한 척도로 언어적 역제의 개인차를 측정한다. BLIRT(Brief Loquaciousness and Interpersonal Responsiveness Test)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충분히 반응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모두 8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BLIRT는 바람직한 내적 일관성과 시간적 안정성을 가진 심리측정의 특질을 가지며, 참가자의 지능, 사회적 바람직성, 그리고 성별과 독립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예비연구로 BLIRT의 타당화 작업을 거쳤으며 그 결과 번안된 BLIRT는 Swann 등(2001)이 BLIRT를 개발하면서 보고한 바와 같이 단일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내적합치도는 $\alpha=.753$ 이었다. 또

각각의 요인부하값은 .75에서 .46까지였다.

또 번안된 BLIRT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Swann 등(2001)이 BLIRT와 가장 밀접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고한 자기 주장 척도(Rastus Assertiveness Scale :RAS, Rathus, 1973)와의 상관은 .722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어느 정도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고한 외향성 척도와 신경증 척도는 각각 .571의 정적 상관과 -.167의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신경증 척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BLIRT가 성격 특성 가운데 외향성과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신경증과는 반대의 개념이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자기 주장 척도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며 언어적 반응을 억제하지 않는 것이 자기 표현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주장성과 매우 유사한 개념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주장성은 “확신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폭넓게 전달하는 능력”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폭넓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특성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면서도 주장적인 사람은 서로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고 적극적이며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김인자, 1986) 언어적 반응이 적절한 지의 여부를 묻지 않은 BLIRT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BLIRT 점수는 높은 점수가 언어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예: 나는 할 말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역제가 미치는 효과를 한 눈에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BLIRT 점수를 반대로 코딩했다. 따라서 2,3,5,7번 문항(예: 나는 나를 어떻게 표현할 지 방법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은 그대로 두고 1,4,6,8번 문항(예: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은 역코딩되었다. 본 연구에서 BLIRT의 내적 합치도는 남편의 경우 $\alpha=.72$ 이었고, 아내는 $\alpha=.73$ 이었다.

의사소통 유형 질문지 : CPQ(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

Christensen과 Heavy(1984)가 개발했으며 갈등 상황

에서의 부부 간 의사소통 행동을 9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 매기며 모두 3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이 가운데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18 문항을 번역, 역번역, 리뷰 과정을 거쳐 다시 번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자가 제시한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 요구-철회 의사소통의 전체 합, 남편요구-부인철회 의사소통, 부인철회-남편요구 의사소통, 요구-철회 의사소통에서의 역할, 상호회피와 철회, 6가지 CPQ 하위 척도 가운데 부인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 3문항(예:아내는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반면 남편은 논의를 피하려고 한다)과 남편요구-부인철회 의사소통 3문항(예:남편은 잔소리하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반면 아내는 물러서거나 입을 다물어 버리고 더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거부한다) 모두 6문항을 사용하였다.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의 발생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지각 사이에 강한 일치를 보이고 있어서(남편요구-부인철회의 $\text{intraclass}\rho=.49$, 부인요구-남편철회 $\text{intraclass}\rho=.50$) 커플이 함께 만들어내는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남편과 부인의 개인 점수의 합에 분석에 사용했다(Weger, 2005). 본 연구에서 부인요구-남편철회 3문항의 신뢰도는 $\alpha=.77$ 이었고, 남편요구-부인철회의 신뢰도는 $\alpha=.74$ 이었다.

결혼만족 척도 : MSS(Marital Satisfaction Scale)

Roach, Frazier와 Bowden(1981)이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을 노명희와 이숙(1991)이 문항을 수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선택을 다시 하여 구성된 40문항을 서정선(2006)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MSS는 주어진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지각에 관한 것을 측정한다. 하위요인으로 애정적인 부부관계(20문항),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7문항),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7문항), 권위적인 부부관계(6문항)가 있고, 5점 리커트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남편의 경우 각각 .89, .86, .87, .73이었고, 아내의 경우 각각 .95, .86, .89, .71이었다.

절차와 분석 방법

APIM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 접근을 하였고, 이를

위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AMOS 5.0을 사용하였다. 기타 통계 검증을 SPSS 12.0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첫째,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둘째, 짝 자료에서의 남편과 부인에게 척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통해 언어적 억제가 결혼만족을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넷째, 언어적 억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 간 의사소통패턴이 매개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Shrout & Bolger(2003)의 제안에 따라 총 네 단계를 거쳐 매개경로의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매개경로의 유의미성은 Sobel 검증보다 더욱 민감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부트스트랩 검증(bootstrap test)¹⁾을 통해 이루어졌다(Shrout & Bolger, 2003).

본 연구자는 개인 내 효과와 대인 간 효과 모두에 관심을 두고 분석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APIM을 기본적인 자료 분석 전략으로 채택하였다(Kashy & Kenny, 2000). 결혼관계에 있는 커플자료는 서로 독립적인 자료를 다루는 연구분석과는 다른 방법이 요구된다. 남편과 부인은 결혼 이전부터 유사할 가능성이 크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서로 뗄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만족도는 자신의 특성(예: 성격)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Kenny, 1996) 두 구성원 간의 상호성을 가정해야한다. 따라서 Cook(1998)은 일반적으로 개인 내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량 분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커플 자료를 다루는 경우 부적절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커플 관계에 있는 각 구성원들로부터 얻어진 관찰치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Kenny(1996)는 부부의 상호 의존성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료의 분석에서 한 개인의 특징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자기효과)와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상대방 효과)를 동시에 살펴볼

1) Sobel 절차를 따를 경우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함에 있어서 표준오차의 정상성을 가정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Shrout와 Bolger(2002)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트스트랩 절차를 제안했는데 부트스트랩 절차는 통계적 추정치의 유의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험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현황

변인	세부항목	남편	부인
연령(평균)		39.0	36.33
결혼기간(평균)		10.02(년)	
연령차이(평균)		2.75(살)	
자녀수(평균)		1.49(명)	
맞벌이여부	하고 있음	50%	
	하고있지 않음	50%	
학력	고등학교 이하	10.5%	18.7%
	전문대	6.9%	15.5%
	대학교	60%	51.8%
	대학원 이상	22.7%	14.1%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3.2%	
	200~300만원	15.9%	
	300~400만원	24.5%	
	400만원 이상	56.4%	

수 있는 짝 자료 분석 방법인 APIM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결과 및 해석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의 응답자는 총 220쌍이었다. 이들의 연령, 결혼기간, 연령차이, 자녀수, 맞벌이여부, 사회·경제적 수준, 학력 등은 표1에 제시되어있는 내용과 같다.

결 과

측정 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남편과 부인의 자료를 합하여 총 6개의 잠재변인들이 선택되었다. 남편과 부인 각각에 대하여 언어적 억제 변인을 측정하는 2개의 측정변수와 결혼만족 변인을 측정하는 4개의 측정변수를 구성하였고,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 변인에 대하여 각각 3개씩의 측정변수를 구성해 모형의 적

합도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2과 그림 1에 제시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해 본 결과 각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들은 모두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측정모형의 검증을 위한 모형 적합도는 TLI=.874이었지만 CFI=.901, RMSEA=.091로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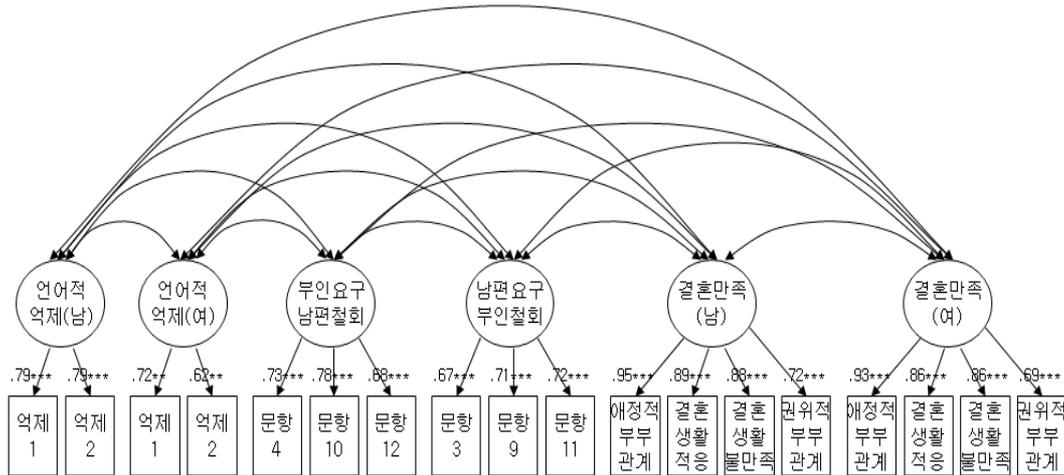
짝 자료에서 척도의 측정 동일성 검증

연구 모형 분석에 앞서 BLIRT와 결혼만족 척도가 남편과 부인에게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동일성은 비교하려는 집단 간에 각 요인계수가 동일한지 평가한다. 즉 요인계수가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인계수가 같다는 것을 평가함으로써 측정변인들이 같은 잠재변인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요인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으면 측정 동일성이 성립된다. 측정 동일성을 검증은 남편과 부인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화 제약 모델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델 간의 χ^2 차이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홍세희, 2001).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n=220)	339.818***	120	.874	.901	.091

***p<.001



***p<.001 **p<.01

그림 1. 측정모형의 검증

먼저 BLIRT의 측정 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측정 동일화 제약 모델 - 기저 모델은 χ^2 dif (7) = 11.532(p=0.117)로 두 모형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 측정동일성이 성립하였다. 모델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와 RMSEA는 모델 간명성을 고려하는 적합도이므로 측정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 적합도가 기저 모델 적합도에 비해 크게 나빠지지 않으며 동일화 제약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홍세희, 2006).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 동일화 제약 모델이 TLI와 CFI, 그리고 RMSEA 값이 모두 상승하였으므로 측정 동일성이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만족의 측정 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측정 동일화 제약 모델 - 기저 모델은 χ^2 dif (36) = 38.821(p=0.344)로 두 모형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 측정동일성이 성립하였다. 표4에서 모델 적합도를 살펴보면, 측정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 적

표 3. 언어적 비억제 척도의 남편과 부인 측정동일성 검증의 적합도

모델	χ^2	df	TLI	CFI	RMSEA
기저 모델	153.713***	40	.758	.827	.081
제약 모델	165.245***	47	.785	.850	.076

***p<.001

표 4. 결혼만족 척도의 남편과 부인 측정동일성 검증의 적합도

모델	χ^2	df	TLI	CFI	RMSEA
기저 모델	3257.882***	1468	.821	.831	.053
제약 모델	3296.703***	1504	.825	.831	.052

*** p<.001

합도가 기저 모델 적합도와 비교해 CFI 값은 그대로이며 TLI와 RMSEA 값이 모두 상승하였으므로 측정 동일성이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언어적 비억제 척도와 결혼만족 척도 모두 남편과 부인에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조모형의 검증

가. 언어적 억제는 더 낮은 결혼만족을 예측하는가?

남편과 부인의 언어적 억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TLI=.914, CFI=.936, RMSEA=.100으로 어느 정도 자료에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홍세희, 2000). 남편이 갖는 언어적 억제 수준은 자신의 결혼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으며(남편의 자기효과), 부인의 언어적 억제는 자신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경향성(p<.10 수준에서 유의미)을 보였다(부인의 자기효과). 그러나 남편과 부인의 언어적 억제 수준은 상대방의 결혼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편과 부인의 언어적 억제가 결혼만족에서의 상관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과 부인의 언어적 억제 수준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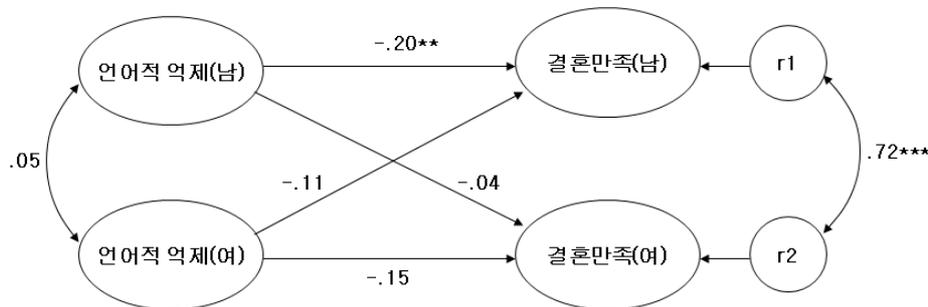
나. 언어적 억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요구-철회 의사소통패턴에 의해 매개되는가?

언어적 억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이 매개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모형 검증은 남편의 언어적 억제와 관련 있는 부인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 패턴이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살펴보고 검증된 매개모형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독립변인인 언어적 억제에서 매개변인인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으로 가는 경로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인 결혼만족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고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종속변인으로 가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하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될 수 있다(홍세희, 2007). 본 연구에서는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sobel 검증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한 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이 가질 수 있는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bootstrap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방식으로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그 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홍세희, 2007). 그 결과

표 5. 언어적 억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의 APIM 분석결과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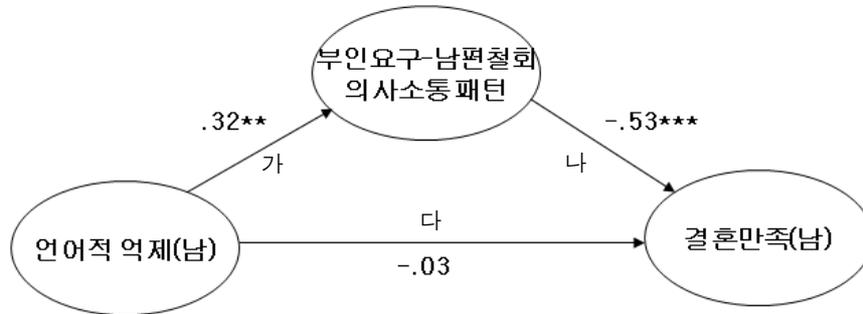
	χ^2	df	TLI	CFI	RMSEA
(n=220)	157.339***	49	.914	.936	.100

*** p <.001



*p<.05 **p<.01 ***p<.001

그림 2. 언어적 억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p<.001 **p<.01

그림 3. 부인요구-남편철회의 언어적 억제(남편) 매개모형 검증

표 6. 부인요구-남편철회의 언어적 억제(남편) 매개모형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n=220)	77.232***	24	.928	.952	.101

*** p <.001

표 7. 부인요구-남편철회의 언어적 억제(남편) 매개효과 검증

Effect	Path	Bootstrap estimate		95% Confidence interval	
		B	SE	Bootstrap percentile	Bootstrap with Bias-corrected
direct	가'	0.415	0.160	(0.114, 0.742)	(0.114, 0.744)
	나'	-.0491	0.128	(-0.839, -0.315)	(-0.808, -0.308)
	다'	-.0035	0.101	(-0.218, 0.182)	(-0.234, 0.161)
indirect	가*나	-.204	0.088	(-0.422, -0.059)	(-0.426, -0.061)

주. N=220. Bootstrap samples은 1,000번, Bootstrap Estimates는 unstandardized된 자료임

가' 언어적 억제(남편) → 부인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 패턴

나' 부인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 패턴 → 결혼만족(남편)

다' 언어적 억제(남편) → 결혼만족(남편)

가*나 언어적 억제(남편) → 부인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 패턴 → 결혼만족(남편)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언어적 억제가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 패턴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접경로를 확인해서 완전매개 하는지 부분매개 하는지를 확인했다. 완전매개 하는지, 부분매개 하는지 알기 위해서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을 통제하고 언어적 억제로부터 결혼만족에 이르는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미한지를 보고 검증한다. 표7에 제시된 매개경로의 직접 경로 유의미성을 살펴보면, '다'로 나타난 직접 경로에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매개경로가 유의미하게 나온 경로에서 직접 경

로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으므로 본 연구 모형은 완전매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남편의 언어적 억제가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부인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 패턴이 완전매개 하였다. 2)

논 의

본 연구는 결혼관계에서 고유한 개인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언어적 억제의 개인차가 나타낼 수 있는 효과

2) 부인의 언어적 억제가 부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경향성만 나타냈지만 남편요구-부인철회 의사소통 패턴이 매개하였다.

를 검증해 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언어적 억제 개인적 차원과 관계 맥락적 차원에서 갖는 효과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Kenny(1996)의 제안에 따라 APIM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리고 언어적 억제가 결혼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부부 간 의사소통 패턴 가운데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으로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척도들의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수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먼저 실시하였다. 이어서 각 척도들에서 짝 자료들이 남편과 부인에 걸쳐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언어적 억제와 관계만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언어적 억제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남녀가 어떤 조합으로 짝지어졌을 때 관계의 질이 곤란을 겪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Swann et al., 2003, 2006, 2007). 하지만 본 연구는 언어적 억제 수준의 어떤 조합의 결합이 해로운 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나 부인이 갖는 언어적 억제의 수준이 개인 내적 측면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갖는 영향을 규명해 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결과는 언어적 억제가 결혼만족에 대해 남편의 경우는 자기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부인의 경우도 어느 정도 자기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남편과 부인의 언어적 억제가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즉 언어적인 반응의 양이 풍부하고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부부관계에서 높은 결혼만족을 보고하였지만,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람의 성격 특질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그럴 듯해 보이지만, 여러 연구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이 태도적으로 유사한 파트너에게 더 끌린다는 증거가 많으며, 유사한 역할을 선호하고, 여가에 대한 관심이나 성 역할의 지향이 유사한 파트너에게 좀 더 관심이 간다고 보고한다. 또 태도와 지능의 측정치에서 유사한 파트너와 짝을 지으려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Swann,

Rentfrow, & Gosling, 2003). 그러나 유사성 원칙을 전통적인 성격 구성요소로 확대하려는 노력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다. 실제로 Klohnen과 Mendelson(1998)은 최근 성격-유사성 가설에 대한 경험적 지지가 적기 때문에 성격이 파트너 선택에 체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 지으려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언어적 억제라는 개인 특성은 가까운 관계의 의사소통 패턴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일상에서 자신이 마음 속에 생각하는 것을 바로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의 요구를 좀 더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언어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자신의 특성이 자기의 결혼만족에 효과(자기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인의 언어적 억제가 자기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가 남편이 언어적으로 억제하는 것과 달리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경향성만 보여주었는데, 이는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패턴 가운데 가장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는 부인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 패턴을 설명하는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부인요구-남편철회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패턴이 다른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패턴보다 부부 간에 자주 나타나는 것을 2가지 가설을 갖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하나는 남성과 여성의 내재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Rubin(1983)은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정체감은 '관계 맥락(context of relationship)'에 의해 발달하게 되고, 남성의 정체감은 '분리 맥락(context of separation)'에서 발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성인이 되어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여성은 흔히 '분리'에 의해서 더 위협을 느끼게 되고, 남성은 '애착'과 '친밀감'에 의해서 더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Christensen(1988)은 이러한 사회화 과정의 차이가 결혼생활에서 여성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남성은 더욱 독립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이 주요한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부인은 요구하고 남편은 철회하는 행동 패턴을 나타내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하나는 사회적 구조 가설(social structure hypothesis)로 결혼관계 내에서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결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남성은 부부 간의 관계를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여성은 기대했던 보상을 얻지 못하는 현재의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될 수 있다(Christensen & Heavy, 1990). 따라서 Jacobson(1983)은 현재 상태에 불만을 느끼고 변화를 바라고 있는 부인은 요구적 행동을 보이게 되고, 반대로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남편은 변화하고자 하는 압력에서부터 철회하고 물러서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에 덧붙여 관련 연구에서는 부인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지배성(domineeringness)이 클수록 부인 자신의 결혼만족을 감소시킨다고 제안했다(Courtright, Millar, & Rogers, 1979). 즉 여성은 자신이 대화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를 불만족스럽게 여긴다는 말이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의 언어적 억제가 상대 배우자에게 미치는 효과(상대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언어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개인 특성이 가지는 무엇보다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반응자가 갖는 기질이나 다른 특질을 증폭시켜서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Swann과 Rentfrow(2001)는 대인관계의 짧은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언어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회성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질과 지능, 그리고 정서적 반응, 외향성 등의 특질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언어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방이 파악하기 쉬운 'good target'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어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특성은 반응자의 긍정적인 특질 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특질도 증폭시키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한 특성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언어적 억제가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언어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이 자신의 긍정적인 특질을 두드러지게 하여

상대방의 결혼만족을 높은 커플이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특질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결혼만족을 낮춘 커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이 서로 상쇄되어 언어적 억제라는 특성이 상대 배우자에게 미치는 효과(상대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언어적 억제와 함께 남편과 부인이 갖는 긍정적인 특질과 부정적인 특질을 동시에 측정해 이를 통제하고 나서 언어적 억제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억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부부 간 의사소통 패턴 가운데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이 매개하느냐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언어적으로 억제하는 남편은 부인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 패턴을 거쳐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억제가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을 거쳐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된 뒤에 언어적 억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이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의사소통의 주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언어인 만큼 언어적 억제라는 개인 특성이 의사소통 패턴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증명했다. 언어적 반응을 억제하는 남편은 갈등상황에서 아내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모습을 지각한 아내는 대화를 시도하며 요구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고 남편은 그러한 아내의 시도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소통 패턴은 부부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어떠한 문제해결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내의 불만은 증폭되어 더욱 요구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남편은 그러한 아내를 또 다시 회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게 된다.

본 연구는 부부관계에서 언어적 억제를 쌍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기 때문에 단일 자료로는 발견할 수 없는 개인 내 효과와 대인 간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전 연구에서 보여준 남녀의 어떤 언어적 억제 수준의 조합이 관계만족을 해치는지에 앞서, 남편과 부인의 언어적 억제 수준 자체가 자기와 상대방에게 갖는 의미를 먼저

살펴볼 수 있었다. 또 언어적으로 억제하는 남편과 부인이 보일 수 있는 행동적 변인인 의사소통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다. 하지만 Swann 등(2003, 2006, 2007)의 연구를 통해 나타난 위험한 커플효과(peculiar couple effect)의 유효성을 간과할 수 없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언어적 억제가 비슷한 수준의 커플이나 언어적으로 억제하는 여성이 언어적으로 억제하지 않고 비판적인 남성과 짝지워진 커플의 경우에는 관계의 질에 있어서 감소를 보이지 않았지만 유독 언어적으로 억제하는 남성이 언어적으로 억제하지 않고 비판적인 여성과 짝지워졌을 때 관계의 질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즉 남편과 부인의 언어적 억제의 수준 자체만으로는 관계만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남편과 부인의 언어적 억제 수준의 조합이 함께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부부 간 의사소통 패턴을 살펴 보는데 있어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이는 실제 부부 간 의사소통 패턴과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각자의 의사소통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의사소통을 직접 관찰해서 평정하고 자기보고와 함께 다루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계수(2006).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 노명희, 이숙(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9(4), 181-206.
- 백혜영(2007). 애정관계에서의 낙관성: 상대에 대한 긍정적 환상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정선(2007).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용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현균, 장재윤(2003).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815-827.
- 이정은(1999).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 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승락, 권정혜(1998). 부부 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 만족 -성차, 요구입장 차이 및 성격 특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98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109-124.
- 전석균(1994). 정신분열증 환자의 재활을 위한 사회기술훈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7-177.
- 홍세희(2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미발간 워크샵 교재.
- 홍세희(2007).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다집단 분석 및 매개효과 검증. 미발간 워크샵 교재.
- Berns, S. B., Jacobson, N. S., & Gottman, J. M. (1999). Demand - withdraw interaction in couples with violent husban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 666-674.
- Broderick, C. B.(1983). *Therapeutic triangle: A sourcebook on marital therapy*. London: Sage.
- Caughlin, J. P., & Huston, T. L. (2002). A contextual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demand/withdraw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9, 95 - -119.
- Caughlin, J. P., & Vangelisti, A. L.(2000). A individual difference explanation of why married couples engage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conflic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7(4-5), 523-551
- Caughlin, J. P., & Vangelisti, A. L.(2005). Disconfirming communication and self-verification in marriage: Associations among the demand/withdraw interaction pattern, feeling understood,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2(1), 19-31.
- Christensen, A.(1988). Dysfunctional interaction pattern in couples. In P. Noller & M. A. Fitzpatrick(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pp. 31-52). Clevedon &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 Christensen, A. & Heavey, C. L.(1990).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3-81.
- Christensen, A. & Shenk, J. L.(1991). Communication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nondistressed, clinic, and divorcing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458-463.
- Christensen, A. & Sullaway, M.(1983). Assessment of dysfunctional interaction pattern in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653-660.
- Christensen, A. & Sullaway, M.(1984).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Department of Psychology, Los Angeles.
- Courtright, J. A., Millar, F. E., & Rogers, L. E. (1979). Domineeringness and dominance: Replication and expansion. *Communication Monographs*, 46, 179 - 192.
- Giles, H., & Street, R. L., Jr. (1994). Communicator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In M. L. Knapp & G. R. Miller (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2nd ed., pp. 103-161). Thousand Oaks, CA: Sage.
- Goldberg, L. R.(1993). The structure of phenotypic personality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8, 26-34.
- Gottman, J. M.(1979). *Marital Interaction: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rlando. FL: Academic Press.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J: Erlbaum.
- Gottman, J. M., & Krokoff, L. J.(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7-52.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737-745.
- Greenburg, L. S., & Johnson, S. M.(1986). *Emotionally focused couples therapy*. *Clinical handbook of marital therapy*(pp.253-276). New York: Guilford press.
- Heavey, C. L., Christensen, A., & Malamuth, N. M. (1995). The longitudinal impact of demand and withdrawal during marital confli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797 - 801.
- Heavy, C. L., Larson, B. M., Zumtobel, D. C., & Christensen, A.(1996). The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constructive communication sub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796-800.
- Heavy, C. L., Layne, C., & Christensen, A.(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Jacobson, N.S.(1989). The politics of intimacy. *Behavior Therapist*, 12(2), 29-32.
- Jacobson, N. S.,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 Karney, B. R. & Bradbury, T. N.(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enny, D. A.(1996). Models of non-independent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2), 279-294.
- Klohn, E. C., & Mendelsohn, G. (1998). Partner selection fo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 couple-centered approach.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Bulletin*, 24, 268 - 278.
- Rathus, S. A.(1973). A 30-item schedule for assessing assertive behavior. *Behavior Therapy*, 4, 398-406.
- Rubin, L. B.(1983). *Intimate strangers: Men and women together*. New York: Harper & Row.
- Srivastava, S., MacGonial, K. M., Richards, J. M., Butler, E. M., & Gross, J. J. (2006). Optimism in close relationships: How seeing things in a positive light makes them s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 143-153.
- Shrout, P. E., & Bolger, N.(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wann, W. B., Jr., & Angulo, S.(2006). *Female-demand, male-withdraw in precarious couples*. Manuscript in prepar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Swann, W. B., Jr., De La Ronde, C., & Hixon, J. G.(1994). Authenticity and positivity strivings in marriage and court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857-869.
- Swann, W. B., Jr., McClarty, K. L., & Rentfrow, P. J.(2007). Shelter from the storm? Flawed reactions to stress in precarious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5), 793-808.
- Swann, W. B., Jr., & Rentfrow, P. J.(2001). Blirtatiousness: Cognitive,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consequences of rapid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160-1175.
- Swann, W. B., Jr., Rentfrow, P. J., & Gosling, S. G.(2003). The precarious couple effect:Verbally inhibited men + critical, disinhibited women = bad chemist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1095-1106.
- Swann, W.B., Jr., Guinn, J. S., & Larsen, K. M.(2006). Tempting today, troubling tomorrow: The roots of the precarious couple effe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1), 93-103.
- Swensen, C. H., Eskew, R., & Kohlhepp, K(1981). Stage of family life cycle, ego development, and the marriag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841-853.
- Vogel, D.L., Murphy, M. J., Werner-Wilson, R. J., Cutrona, C. E. & Seeman, J. (2007). Sex differences in the use of demand and withdraw behavior in marriage:Examining the social structure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165-177.
- Weger, H., Jr.(2005). Disconfirming communication and self-verification in marriage: Associations among the demand/withdraw interaction pattern, feeling understood,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2(1), 19 - 31.

The Influence of Verbal Inhibition on Marital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Patterns

Minsun Kim Hee-Cheon Shin
Ajou University

This study addressed effects of verbal inhibition on marital satisfaction by importing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patterns between husband and wife as a mediator and confirming the results through the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The outcome of this study can be divided in two major points. First, by verifying how verbal inhibition affects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it was proven that verbal inhibition of the husband has an effect on his own marital satisfaction significantly but there were little partner effect. In other words, verbal inhibition has only an actor effect. Second, when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patterns between married couple was employed as a mediators especially males demonstrated a progress of actor effect through the complete mediation. Thus, we can predict that verbally inhibited husbands show wife-demand/husband-withdraw communication patterns and such a communication patterns hurt his own marital satisfaction.

Keywords: verbal inhibition,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patterns, marital satisfaction, APIM, actor effect, partner effect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1월 31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05월 13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05월 17일